

세종대학교 2022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예시 답안

1. 제시문 (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제시문 (가)는 말을 빌려 타면서 얻게 된 소유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설명한 글이다. 야윈 말을 빌렸을 때는 조심조심 몰았지만 준마를 빌렸을 때는 거칠게 몰고 유쾌하게 내달리기도 했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 빌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 때로는 돌려주어야 한다는 사실조차 잊고 자신이 소유한 물건처럼 다룬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소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말과 같은 구체적인 사물뿐 아니라, 권력이나 부귀영화와 같은 추상적인 대상에도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예컨대 임금의 신분과 권한, 신하의 부귀와 권세는 모두 백성으로부터 부여된 것이지 그들의 소유가 아니다. 그런데 이를 잊고서 마치 자신들의 소유인 양 남용한다면 결국에는 독부나 고신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즉 제시문 (가)는 말과 같은 사물이든 신분이나 권력이든 모두 인간이 원래부터 소유한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소유의 본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경계하고 있다. (492자)

2. 제시문 (다)의 이도가 새로운 글자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요약하고, 제시문 (가)와 (나)를 모두 논거로 활용하여 제시문 (다)의 정기준을 비판하시오.

이도는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치에 참고하는 것이 임금의 덕목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백성들은 한자가 어려운 까닭에 자신들의 뜻을 직접 전달할 수 없었고, 관료들을 거쳐 전달되며 민의는 관료들의 입맛에 맞추어 왜곡되고 편집되었다. 이도는 이를 해결하고자 모두가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 백성의 소리를 직접 듣고자 한 것이다.

반면 정기준은 이도의 이러한 시도가 권력을 백성들에게 넘기려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왕과 관료는 권력을 소유한 만큼 잘못을 하면 책임을 질 수 있으나, 백성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시문 (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왕과 신하의 지위나 권력은 원래 백성의 것이고 왕과 사대부는 이를 잠시 빌린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권력을 백성들에게 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는 그의 주장을 비판할 수 있다.

또한 정기준은 백성들이 글을 알면 깨이게 되고 자신들의 주장을 드러내면서 권력이 움직이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런 세상이 되면 사대부는 권력을 잃고 조선을 이끌던 성리학 또한 자리를 잃게 되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출생으로 결정된 양반이라는 신분의 우월함과 그것에 기반한 사대부 권력을 지속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제시문 (나)의 오스만 제국과 같이, 한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출신이나 신분이 아닌 능력에 따라 기회를 제공하고 대우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신분이 낮은 백성들도 쉬운 글자를 통해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을 막고자 했던 정기준을 비판할 수 있다. 또 오스만 제국이 종교나 풍습, 민족 등에 대해 관용적인 정책을 취하며 광대한 영토에 걸친 번영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조선을 성리학으로만 다스려야 한다는 그의 주장 역시 편협한 견해라 할 수 있다. (871자)